

March 08 보기를 원하나이다

• 누가복음 4:16-19; 마가복음 10:46-52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내게 물으신다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매오는 볼 수 있는 자, 제자라 불리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왕으로 인정하며 나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신다는 말에 곁웃을 내버리며 나아갑니다. 거지인 바디매오에게 곁웃은 전부이며 생명 같은 물건입니다. 동시에 인생의 무게를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시선, 냉혹한 현실, 고독하고 추운 밤으로부터 자신을 가려 주고 감싸 주었던 곁웃은 바디매오의 눈물과 아픔이 담긴 물건입니다.

바디매오는 사람을 뚫고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바디매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 관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요구했습니다(마 10:37). 예수님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 왔다’고 선포하셨음에도 사람들은 눈먼 바디매오가 주께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매오는 돌아서지 않고 끗끗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막 10:51). 눈먼 바디매오에게 너무 당연한 청같습니다. 그러나 ‘눈먼’ 우리는 보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거지’ 바디매오도 구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필요와 결핍을 뒤로하고, ‘보는 것’을 먼저 구했습니다. 바디매오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요청대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바디매오는 눈을 떠 예수님을 보았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나섰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질문에
무엇으로 답하고 있습니까?

- ❶ 나의 필요와 결핍들은 무엇입니까?
- ❷ 내가 예수님께 간청할 것은 무엇입니까?